

전기, 전자, 정밀기술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대성전기(주)



▶ 대성전기(주)의 신뢰성 시험라인 전경

73년 탄생, 종합부품메이커로 성장 발전

대성은 1973년 3월에 설립되어 공장가동 첫해인 1974년에 SWITCH, RELAY등 일부 전자기기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년차적으로 각종 산업용 핵심부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28년이 지난 현재는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을 비롯하여, 정보통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업용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종합부품메이커로 성장 발전해 왔다.

사업분야로서는 자동차용 각종 스위치와 Relay, Control Unit 및 BEC(Bussed Electr-

“경기도 안산시 반월 공단내에 위치한 대성전기(주)는 전기, 전자, 자동차 및 정보통신의 핵심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종합부품업체로서 항상 고객과 함께 발전한다는 경영철학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기업이다.”



ical Center) 등을 생산하여 현대, 대우, 기아 등 자동차 3사에 공급하면서 우수한 품질로 완성차업체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세계 시장규모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는 Micro Switch와 전기전자 기기용 각종 Switch 및 Relay, 16배속 DVD-Rom Deck Mechanism, 냉장고 및 에어컨용 Thermostat 등을 비롯해서 휴대폰용 핸즈프리 킷, 키 패드, Micro DC 진동모터 등 통신기기 부품을 생산하고, 이외에도 자동판매기용 지폐식별기, 유무선 Head Phone, LCD Monitor용 A/D Board, TFT LCD용 관련부품(LGP, MOLD FRAME)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여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 3사



▶ 대성의 LCD와 Back Light 제품

는 물론이고 Sony, NEC등 국내외 대기업과 거래하며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혁신을 통하여 일류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97년에는 5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함으로서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대성전기의 관계회사로는 (주)대성 ELTEC, (주)델텍, 중국 청도 대성전자유한공사, PT.DAESUNG ELECTRONIC INDONESIA(DEIN) 가 있다.

중단없는 경영혁신과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대성전기는 21세기 더욱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꾸준한 경영혁신 활동과 연구개발에 전임직원이 훈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술면에서는 지난 86년에 일본의 자동차용 전장품 전문생산업체인 Niles부품(주)와 기술제휴를 체결하여 선진기술의 습득을 통한 기술개발력 향상에 노력해오고 있으며, 1987년 6월에는 점점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앞서나가고자 전문기술 인력을 충원하고 연구설비를 보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그 후 200여명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지속적인 투자로 폭넓은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한편, 21세기 신기술 신상품에서 요구되는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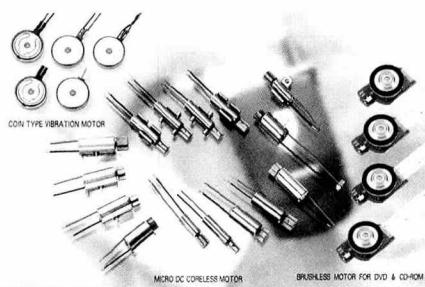
부품 공급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보다 앞선 기능과 완벽한 품질의 각종 산업용 첨단부품을 연구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이동통신 TFT LCD관련 첨단 핵심부품을 개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AV시스템 개발에 성공하는 등 핵심부품 뿐만 아니라 종합 시스템 개발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자동생산 라인을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화를 통한 생산의 완벽성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기술과 자동화 생산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제품개발 및 자동생산시스템을 해외에 PLANT 수출하고 있다.

품질면에서 보면 품질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88년에는 공진청으로부터 품질관리 1등급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고객인 현대, 대우, 삼성전자로부터 100PPM인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UL, CSA, TUV 등을 비롯한 해외 각국의 안전 규격은 물론이고, 96년 12월에는 미국 UL로부터 당사가 생산하는 전 품목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97년 11월에는 미국의 자동차 3사가 요구하는 QS9000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품질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대성전기는 기존의 100PPM관리 품질수준을 넘어 6시그마 경영을 추진함으로서 경영관리의 총체적 프로세스에 내재된 모든 종류의 불



▶ 대성의 Coreless Motor 등 각종 모터 제품

양요소를 개선·제거해나감으로서 고객에게 최고 품질수준의 제품을 공급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경영혁신 면에서는 94년1월부터 대성생산시스템인 DPS(Daesung Production System)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아울러 멜파이와의 합작이후 선진 신경영 관리기법인 DMS 와 Key Metrics등을 도입하여 발전시킴으로서, 각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을 통해 효율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생산성향상, 낭비제거, 물류개선 등 내부 경영합리화를 통한 건실한 기업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21세기 대성의 VISION

이외에도 대성은 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부품가공기술에서 좌우된다는 신념으로 최첨단의 각종

가공설비를 완비, 초정밀금형의 설계 및 제작에서부터 사출성형과 프레스(Press)가공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면서 대성만의 강점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대성전기는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신상품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내부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실한 재무상태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며, 이제까지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기술로 21세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전임직원은 고객의 요구를 능가하는 제품을 개발 공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제일의 종합부품메이커로 성장 도약하겠다는 대성 임직원의 야심찬 포부가 향후 대성전기의 미래를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자못 관심이 크다.

박재범(朴宰範)



대성전기의 박재범 대표는 경남 함양군 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58년부터 72년까지 삼성그룹에서 15년간 근무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73년부터 대성전기를 이끌고 있는 박사장은 대외 활동 역시 활동하여 1991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하도급 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9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한상공회의 소 특별의원(16대) 역임, 8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회장, 명예회장(95~2000년), 고문(2000~2001년) 등을 역임했다.

또한 98년부터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비상근 감사와 한국능률협회 비상임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 현대자동차 협동회 감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18대) 이사,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2회 동창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